

특집논문

---

## 『홍재일기(鴻齋日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

유 바 다(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

목차

1. 머리말
  2.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2월 고부민란에 대한 기록
  3.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과  
백산대회 기술에 대한 교차 검토
  4. 1894년 4월 이후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과정에 대한 기술
  5. 맺음말
-

# 1. 머리말

奇幸鉉의 『鴻齋日記』가 2011년 발견된 이래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를 다룬 연구가 셋 나왔다. 김철배,<sup>1</sup> 이선아,<sup>2</sup> 성주현<sup>3</sup>의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부안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철배의 연구를 통하여 白山大會 날짜를 1894년 3월 26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를 이어받아 이선아는 기행현의 시각을 중심으로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성주현은 이를 두고 동학 교단 세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풀어내었다. 이로써 『鴻齋日記』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산대회를 3월 26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鴻齋日記』만을 사용할 뿐 기존 사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산대회는 지금까지 그 실체 여부 및 개최 날짜를 두고 숱한 논란이 있었다.<sup>4</sup>

---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 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 2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 3 성주현,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지역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0.
- 4 裴元燮,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배항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韓國史研究』 170, 2015; 조성은,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歷史와 實學』 61, 2016;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2017;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위상」, 『동학학보』 62, 2022.

백산대회가 吳知泳의 『東學史』에서만 언급된 탓이었다. 반면 백산대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대를 기록한 사료들은 상호 착종되어 있어 매우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단적으로 2006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편한 『동학농민혁명사 일지』에 따르면 신용하, 정창렬은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3월 25일로 비정하면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梧下記聞』, 『隨錄』 등을 검토해 볼 때 백산대회가 개최된 시점은 동학농민군 본대가 백산과 예동으로부터 태인 화호로 이동하여 주둔한 3월 26일 저녁 6시경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鴻齋日記』의 기술대로 3월 26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사료와의 충분한 대조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鴻齋日記』를 통하여 특정된 백산대회 개최 날짜를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를 재구하기 위하여 구사하였던 기존 사료들과 교차 검토하여 정확히 드러내도록 하겠다.

그밖에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이전 동학교도의 활동, 그리고 제1차 봉기 이후 제2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동학농민군의 활동 또한 기행현의 시각으로 재구하고자 한다.

## 2.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2월 고부민란에 대한 기록

기행현은 1890년 7월 29일 東學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동학의 설이 크게 일어났다”<sup>5)</sup>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1891년 7월 24일, 9월 8일에

도 똑같이 이루어졌다.<sup>6</sup> 이때 이미 동학이 상당히 창궐한 탓인지 향교의 靑衿案 가운데 동학의 사람은 제명하여 내보내고 訓執 가운데 만약 동학의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제명하여 내보내자는 뜻으로 계를 만들고 의회계 안에 이름을 썼다.<sup>7</sup> 1892년 7월 19일에는 관가가 대대적으로 東學人을 다스려 贖錢 300냥을 거두었고<sup>8</sup> 8월 11일에는 향교에서 동학을 적발하라는 회문이 왔다.<sup>9</sup>

드디어 같은 해 10월 30일 동학교도의 공주 집회 소식이 들려왔다. “東學人들의 공주 감영에 모두 모였고 근일에는 전주 감영에 모였다”는 것이다.<sup>10</sup> 11월 30일에는 “바르게 도를 닦을 일”이라는 題辭를 지닌 東學人의 議送狀을 보았다.<sup>11</sup>

이듬 해 1893년 3월 11에는 東學人들이 伏閣한 일을 들었다.<sup>12</sup> 동학교

5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홍재일기(鴻齋日記) 탈초집(脫草集)』, 흐름출판사, 2017, 330쪽, 庚寅(1890) 7월 29일, “東學之說大起”;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문화발전소, 2022, 576쪽.

6 『鴻齋日記』, 347쪽, 辛卯(1891) 7월 24일, “東學之說大起”; 350쪽, 辛卯(1891) 9월 8일, “此時東學之說大熾 故誦此時”; 『국역 홍재일기』 상, 611쪽.

7 『鴻齋日記』, 350쪽, 辛卯(1891) 9월 15일, “鄉論齊發 校中靑衿案中 東學之人割名送出 訓執中若有之 則亦割名出送之意 以義會作稷題名 義會稷案中”; 『국역 홍재일기』 상, 616쪽.

8 『鴻齋日記』, 369~370쪽, 壬辰(1892) 7월 19일, “官家近日大治東學之人 而受贖三百兩云”; 『국역 홍재일기』 상, 659쪽.

9 『鴻齋日記』, 371쪽, 壬辰(1892) 8월 11일, “自校中東學摘拔之回文來到”; 『국역 홍재일기』 상, 661쪽.

10 『鴻齋日記』, 374~375쪽, 壬辰(1892) 10월 30일, “近聞東學之人 都聚于公州監營矣 近日會于全州監營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669쪽.

11 『鴻齋日記』, 376쪽, 壬辰(1892) 11월 30일, “往禮洞金友仲賢家 見東學之人議送狀題曰 以正修道向事矣”; 『국역 홍재일기』 상, 671~672쪽.

12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11일, “故問京奇 則東學之人伏閣事”; 『국역 홍재일기』 상, 682쪽.

도의 광화문 복합상소도 관측된 것이다. 3월 21일에는 東學人 朴文濤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들었다.<sup>13</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학이 복합한 후 계하 관문에 이르기를 ‘삼천리 강산의 오백년 성학이 방백 수령의 상호 침어로 부지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후로 침어하지 말라. 향교에서는 강학을 하도록 하고 만약 다시 침어하는 방백 수령이 있거든 법률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또 『禮記』에 이르기를,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학문에 있다고 하니 우리의 올바른 도를 강구해서 밝혀야 한다. 너희들은 물러가 더욱 익히고 닦는 일에 힘쓰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異說은 조정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관문의 내용은 『日本外交文書』에서도 눈에 띈다.<sup>15</sup> 다음으로 이미 금구 원평에 동학인들이 진을 이룬 정황이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東學人 30여 명이 금구 원평에 이미 모여 진을 이루었는데 진법은 弓乙陣이고 깃발의 이름은 倡義旗인데 거기에 ‘忠義之士에게 묻고 도모하여 저

---

기』 상, 683쪽.

13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人朴文濤來 自言曰”;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4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伏閣後 啓下關文曰 三千里之江山五百年之聖學 方伯守令 互相侵漁 莫可扶支云 自今以後 勿爲侵漁 自校宮 使之講學 若復有侵漁之 方伯守令 依律施行事云 而又曰 記曰化民俗 其必有學講明斯道 汝等宜惟退 去益勉講修 則何患乎 異說自朝家宜處向事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5 『日本外交文書』 26권, 「東學派舉動情報ノ件」, 417~420쪽, “右建言書ニ對スル國王殿下ノ勅答 館學儒生進士李樾重等上疏大概、敢陳衛斥之義、乞賜允俞之音、事入、啓答曰、省疏具悉、謂曰化民俗、其必由學、講明斯道、則何憂乎邪說之不伏乎、自有朝家之處置、爾等諒悉、益勉莊修”.

왜양을 쓸어 버리자라고 써있으며, 다음 달 2일 행군하여 팔도가 합세하여 왜양을 쫓아내자고 한다.<sup>16</sup>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은 금구 집회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5일에는 동학에 대한 내용의 전주 통문이 향교에 왔다.<sup>17</sup> 4월 11일에는 “동학의 무리는 각자 물러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라는 윤음을 받고 각자 향리로 돌아갔다. 전날의 소동이 다스려졌으니, 조금도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면내 각리에 칙유하라. 壬辰條 檢稅色吏도 또한 신칙하여 입현하도록 하라”는 관하첩이 왔다.<sup>18</sup> 금구 집회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당분간 『鴻齋日記』에 동학에 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가 1894년 1월 12일 드디어 고부민란 소식이 들어왔다. 고부에서 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趙秉甲이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sup>19</sup> 1월 10일 일어난 고부민란 소식이 사흘만에 당도한 셈이었다. 1월 29일에는 고부에서 민란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기록하였다.<sup>20</sup> 2월 11일에는 禮吏 金應建이 고부의 민란이 일어난 곳에 간다고 하였다.<sup>21</sup> 2월 25일에는 고부의 민

16 『鴻齋日記』, 382쪽, 癸巳(1893) 3월 21일, “東學之人三千餘名 已會于金溝院坪成陣 陣法弓乙陣 旗名倡義 旗書曰 詢謀忠義之士 掃彼委洋事云”; 『국역 홍재일기』 상, 685쪽.

17 『鴻齋日記』, 383쪽, 癸巳(1893) 4월 5일, “近東學之意 全州通文 來到校中”; 『국역 홍재일기』 상, 686쪽.

18 『鴻齋日記』, 383~384쪽, 癸巳(1893) 4월 11일, “官下帖來到 而東學之類 既承使各退歸 安業之綸音 各歸鄉里 前日騷訛更無爲憂 少勿驚動之意 飭諭於面內各里 壬辰條檢稅 色吏 亦爲飭送入現云”; 『국역 홍재일기』 상, 687쪽.

19 『鴻齋日記』, 397쪽, 甲午(1894) 1월 12일, “近日古阜民亂大起 而時倅趙炳甲逃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2쪽.

20 『鴻齋日記』, 398쪽, 甲午(1894) 1월 29일, “古阜民亂去益甚”; 『국역 홍재일기』 상, 713쪽.

란이 갈수록 심해져 刺客 27인이 자칭 胡兵隊라고 하면서 민란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1인이 죽었다고 하였다.<sup>22</sup> 여기서 胡兵隊는 淸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정황은 자못 엄중하였는지 2월 27일에는 부안에서도 고부의 민란에 대한 일로 장병을 모집하여 守城하기에 이르렀다.<sup>23</sup> 여기까지가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행현이 보고 들은 정황이다.

### 3.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과 백산대회 기술에 대한 교차 검토

『鴻齋日記』 甲午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 및 백산대회에 대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이 남쪽에서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sup>24</sup>

3월 24일 東學人이 크게 일어났다.<sup>25</sup>

21 『鴻齋日記』, 398쪽, 甲午(1894) 2월 11일, “禮吏金應建書來 而方作古阜民擾之行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15쪽.

22 『鴻齋日記』, 399쪽, 甲午(1894) 2월 25일, “古阜民亂去益甚 刺客二十七人 自稱胡兵隊 芻入民亂中 還爲捉囚一人被死矣”; 『국역 홍재일기』 상, 716~717쪽.

23 『鴻齋日記』, 399쪽, 甲午(1894) 2월 27일, “本邑以古阜民亂事 募軍守城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7쪽.

24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3일, “東學之人四千餘名 自南更會古阜白山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9쪽.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sup>26</sup>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고 한다.<sup>27</sup>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道所峯에 올라가 바라보았는데 거취를 알 수가 없어서 곧장 내려 왔다. 친구 崔友壽이 璽云과 함께 다녀갔다. 東學軍은 즉각 全州로 향했다고 한다.<sup>28</sup>

이를 『隨錄』 등 기존 자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은 근거가 뚜렷하다. 3월 23일 도착한 불안현감 李喆和의 牒문을 보자.

이달 23일 巳時(오전 9~1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 된 창과 죽창을 잡고 본 현의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는데,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알려 왔

---

25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4일, “東學之人大起”; 『국역 홍재일기』 상, 719~720쪽.

26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5일, “東學之人昨入古阜邑 君器奪取 而火藥庫火燃 人名數三人被害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27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6일, “東學之人 茂長高敞興德古阜四邑 軍器奪取 屯聚於古阜馬項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28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7일, “東學軍昨日移陣白山 而今日入本邑云 故登道所峯 望見則不知去就 故即爲下來矣 崔友壽兼與聖云來去 東學軍卽向全州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0~721쪽.

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射亭에 모였는데, 깃발의 구호는 仁, 義, 禮, 智, 信을 쓰거나 혹은 順天, 光州라고 썼습니다.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웠습니다.<sup>29</sup>

이 牒문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이미 3월 23일 오전 줄포에 당도하여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4,000여 명에 근접한다. 실제로 이날 2~3,000명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둘째, 3월 23일 이들이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는 기술도 신빙성이 있다. 같은 부안현의 牒문을 보도록 하자.

부안현 줄포에 와서 모인 무리들은 3월 23일 酉時(오후 5~7시) 무렵에 줄포에서 출발하여 고부로 향할 것입니다.<sup>30</sup>

이 牒문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같은 3월 23일 오후 무렵에 줄포에서 출발하여 고부로 했다.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는 기술과 상통한다.

셋째, 동학농민군은 실제로 3월 23일 이미 고부읍내로 진입하였다. 3

---

29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今月二十三日已時量 不知何許人十餘名 頭着黃巾 手執鐵鎗竹鎗 來到本縣苗浦 午飯三千五百床知委排定矣 追後數三千名 或騎或步 各持銃鎗 來聚苗浦射亭 而旗號段書仁義禮智信 或書順天光州 行色殊常殊 甚驚駭是如白乎旆”;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996, 159~165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5~8쪽.

30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本縣苗浦來會之類 同日酉時量 自該浦離發 將向古阜是加爲白乎旆”;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5~8쪽.

월 24일 도착한 고부군의 공형이 文狀으로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자.

고부군수가 부임하여 취임인사를 하기 위해 감영으로 빨리 나아갔고, 3월 23일 戌時(오후 7~9시) 무렵에 동학도 3,000여 명이 혹은 창을 지니고 혹은 죽창을 지녔는데, 총을 쏘면서 읍내로 난입하였습니다. 말을 탄자가 20여 명이었으며, 모두 향교와 관청건물에 모였습니다. 저녁밥은 읍내의 서리와 민가에 나누어 분담하도록 정하였으며, 그들이 행패를 부린 것은 끝이 없었습니다.<sup>31</sup>

넷째,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는 내용도 근거가 뚜렷하다. 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의 공형이 文狀으로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자.

저들 무리들이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자가 몇 명이었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未時(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4개 읍의 보고와 문장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들의 수를 세어보면, 혹은 수천 명이라 하고, 혹은 3,000여 명이라 하며, 또는 2,000명에서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쪽은 많고 저쪽은 적어서 숫자가 비록 같지 않으나, 처음엔 평민들이 없고 모두 동도였는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서 갈수록 뒤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

31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本郡郡守延命次 馳進營下 二十三日戌時量 東學徒三千餘名 或持鎗劍 或持竹鎗 放砲攔入于邑內 乘馬者爲二十餘名 皆聚于鄉校及公廡 夕飯分定于邑底吏民家 其所作梗 罔有紀極是如爲白乎跡”;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저들은 대나무를 잘라 창을 만들고 포와 검을 거두어들였으며, 인가를 부수고 돈과 곡물을 찾아내어 빼앗는 등의 여러 정상은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창궐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약고에 실수로 불이 붙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매우 모호하지만 그들의 행동들은 매우 놀랄 정도입니다. 잇달아 향교에서 발생한 일은 전에 없었던 일로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를 만일 빨리 무찔러 없애지 않으면 장차 오랫동안 시끄러워질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도와 전략을 궁구하여 잡아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고부 고을의 백성들은 두려운 나머지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길거리에서 소문이 서로 전해져서, 마을 사이에도 이제는 괜히 놀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막 농사철이 되는데도 떠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sup>32</sup>

이牒문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3월 24일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즉사하였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다.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는 기술과 일치한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무렵에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그 수는 역시

32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彼徒將向于軍器庫是如可 先自失火於火藥庫 當場卽死者 爲幾許名 被鎗幾死者亦多 而未時量 出往于郡之西北間路上是如爲白乎跡 今以四邑之報與文狀數爻之 或爲幾千 名或爲三千餘名 又或爲數三千名 此多彼少數 雖不同 初無平民 俱是東徒 而東閃西忽 去益跳踉是白乎跡 刈竹爲鎗 收取砲劍 打破人家 攫奪錢穀之諸般情常已極 猖獗是白芬除良 火藥庫之失火云者告辭 雖甚模糊 舉措尤爲駭眩 至於接蹤於鄉校事 未前有萬萬驚悚 此若不亟圖剿滅 將有繹騷之慮 另究方略 期圖捕捉爲白在果 古阜一境之民 餘怕未定 後關更起 道路之上 風寫相傳 閭里之間 方爲虛驚 迨此方農佃離相續 言念民事 誠甚懂懂 緣由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2~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는 기술은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茂長, 高敞, 興德, 古阜는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茂長에서 기포한 뒤 북상한 경로에 있다. 다음으로 朴文圭의 『石南歷史』를 보도록 하자.

나는 3월에 定婚이 되어 4월 초3일이 大禮日이었다. 이때 인심이 騷動하고 流言이 哄哄하더니 초2일에 東學軍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무리를 모아서는 茂長·高敞·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白山으로 진을 옮겼다.<sup>33</sup>

『石南歷史』는 1879년생인 朴文圭가 73세에 달하여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자필로 기술한 문건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소 부정확하다. (4월) 초2일에 동학 東學軍이 茂長 林內 안 산골 속에서 무리를 모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히 3월 20일의 무장기포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날짜는 무시해도 좋다. 다음으로 “茂長·高敞·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白山으로 진을 옮겼다”는 기술은 “東學人이 茂長, 高敞,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는 『鴻齋日記』의 기술과 거의 일치한다. 동학농민군이 3월 26일 이전 馬項(말목)에 모였다는 기

33 『石南歷史』, 「甲午年正月」, “我나는三月예定婚되야四月初三日이大禮日이다人心이騷動하고流言이凶凶하더니初二日에東學軍이茂長林內안山골속에서聚重하화茂長高敞古阜三四郡을咸城하야軍器을奪取해가지고말목禮洞으로行進을하와白山으로移陣을 하고있다”;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4쪽.

술은 거의 사실로 보인다.

다음으로 『石南歷史』의 “白山으로 진을 옮겼다”는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3월 26일 이전 말목에 모였다가白山으로 진영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따라서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는 기술 또한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鴻齋日記』 3월 26일의 기술과 『石南歷史』의 기술을 다시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隨錄』 기술된 3월 26일 낸 태인현의 보고까지 첨부한다.

『鴻齋日記』

-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
-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畝,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고 한다.
-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고 한다.

『石南歷史』

- 茂長·高畝·古阜의 3~4개 군을 함락시키고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

『隨錄』

- (3월 23일 부안현감 李喆和의 牒문) 이달 23일 巳時(오전 9~11시) 무렵에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 된 창과 죽창을 잡고 본 현의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는데,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 달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射亭에 모였는데, 깃발의 구호는 仁, 義, 禮, 智, 信을 쓰거나 혹은 順天, 光州라고 썼습니다.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웠습니다.

- (3월 24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 3월 23일 戌時(오후 7~9시) 무렵에 동학도 3,000여 명이 혹은 창을 지니고 혹은 죽창을 지녔는데, 총을 쏘면서 읍내로 난입하였습니다.
- (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 저들 무리들이 軍器庫로 향해 가려다가, 먼저 실수로 火藥庫에 불을 내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자가 몇 명이었고, 창에 찔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未時(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 저들 무리들이 점차 전진하여 막 금구 원평에 이르렀는데, 순영문에서는 곧 甘結을 내어서 감영 직할지와 가까운 읍에서 포군 수백 명과 祿商 수백 명을 뽑아 올리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병정들과 함께 성 안팎의 이 민들을 묶어서 龍頭峙로 출진하게 하여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sup>34</sup>
- (3월 25일 금구현의 보고) 저들 무리들이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머물러 잤으며, 전주로 향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평의 마을 두민의 문장에 의거하여 이에 첩보합니다.<sup>35</sup>
-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다가, 화약고가 실수로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sup>36</sup>

34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彼輩次次前進 方此於金溝院平 而營門 則營下近邑 砲軍幾百名 祿商幾百名 發甘抄上 竝與兵丁 城內外吏民 作結出陣龍頭峙 晝宵防禦耳”;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9~165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5~8쪽.

35 『隨錄』, 「營寄」, “以彼徒輩中 火於泰仁 止宿於院平 將向全州云云之意 卽據院平洞頭民文狀 茲以牒報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 (3월 26일 태인현의 보고) 당일(3월 26일) 酉時(오후 5~7시) 무렵 저들 무리들이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읍의 龍山面 禾湖 新德亭리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세력이 매우 커서 방어할 계책이 없다.<sup>37</sup>
- (태인 공형의 문장) 지금 3월 29일 저녁 그들 무리들이 곧바로 동헌에 들어와서 군사들을 풀어놓았으며, 또 내아로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고향을 쳐서 제반 광경이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삼반관속들이 모두가 도망하였고, 본 현감에게 요청하여 印符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그들을 질책하고 주지 않았더니, 그들이 화를 내면서 칼을 건주었습니다. 비록 빼앗기지지는 않았으나, 세력이 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형 또한 전주 이세봉과 함께 아울러 잡혀 들어가서 결박되어 관청 마당에서 주리를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밤을 지나서 지금에야 비로소 풀려났으며, 이제 겨우 급히 보고합니다.<sup>38</sup>

이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동학농민군 일부가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다. 그 뒤를 따라서 2~3,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이

36 『隨錄』, 「營寄」, “以彼徒進屯於斗池面 火藥庫失火燒燼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37 『隨錄』, 「營寄」, “以當日酉時量 彼黨自古阜白山禮洞 一時下山 移屯於本邑龍山面禾湖 新德亭里 放砲吶喊 其勢浩大 防禦沒策”;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38 『隨錄』, 「營寄」, “以今三月二十九日夕 厥徒直入東軒縱兵 又入內衙 揮劍咆喝 諸般光景 罔有記[紀]極 三班官屬 舉皆鼠竄 要請本縣監 欲奪印符 叱責不給 則發怒擬劍 雖不見奪 勢孤力單 莫敢抵當 公兄亦被捉入 竝與全州李世鳳 同爲結縛 股釵於庭下 不省精神 一夜經過 而今始得放 今纔馳告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77~192쪽;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12~24쪽.

들은 오후 7~9시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읍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당일 오후 1~3시 무렵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활동은 『鴻齋日記』에 따르면 분명히 3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隨錄』에 보고일(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기준으로 이 활동이 3월 2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sup>39</sup> 기행현은 분명히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고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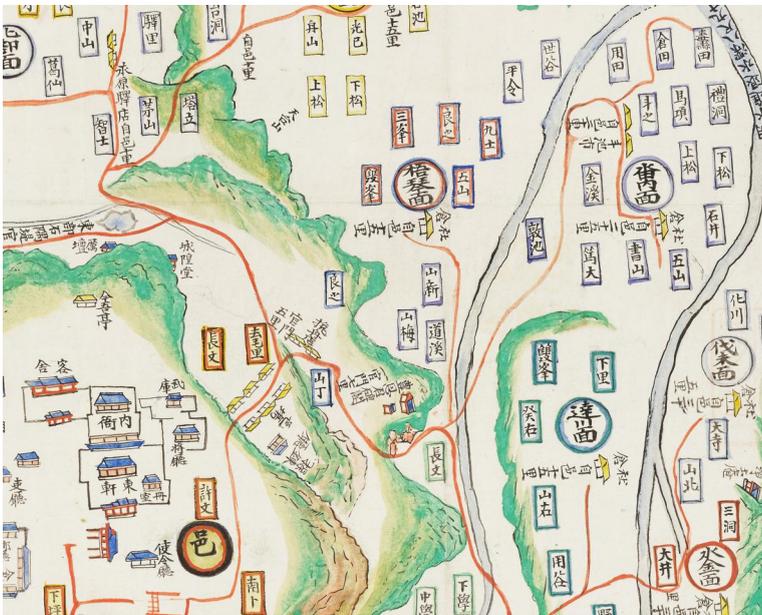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화약고는 기행현의 진술대로 고부읍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隨錄』의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에 따르면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다가, 화약고가 실수로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1872년 지방지도』 중 古阜 항목에 따르면 斗池는 곧 斗之로 추정되며 馬項 바로 서편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斗池리다. 馬項, 즉 말목장터도 지금 현재 이평면 두지리에 있다. 斗之와 馬項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1872년 지방지도』에도 나타나지만 고부 화약고가 斗之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 고부 화약고가 읍내로부터 상당 거리 떨어진 이평 斗之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39 裴亢燮,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37~38쪽.

『梧下記聞』「茂長縣布告」 기사에 따르면 “고부군 보고에 저들 무리들이 本郡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고 화약고가 불탔다”<sup>40</sup>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隨錄』에 기재된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따른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고부군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872년 지방지도』에 따르면 武器庫, 즉 武庫는 고부읍내 內衙 동편에 있었다. 그리고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다고 하니 동학농민군 주력은 3월 24일 분명히 古阜 馬項(말목), 斗池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도 1> 고부읍내 軍器庫(武庫) 및 馬項 서쪽 斗池之의 위치(『1872년 지방지도』)

40 『梧下記聞』, 『茂長縣布告』, “同日未時 古阜郡報 彼輩進屯本郡斗池面 火藥庫燒燼”;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6쪽.

3월 25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활동은 불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隨錄』 「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말미의 기술 및 (3월 25일 금구현의 보고)에 따라 이들이 태인과 금구 원평방면으로 향하였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고 하였다.<sup>41</sup>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사 일지』<sup>42</sup>에 따르면 태인, 금구, 원평 방면의 활동은 김개남이 활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石南歷史』도 동학농민군이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고 기술하였다. 금구 원평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3월 25일 동학농민군 주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鴻齋日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3월 27일) 本邑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적어도 백산으로의 진영 이동은 3월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이 그 이

41 배항섭, 앞의 논문, 37~38쪽.

4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39~47쪽,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부의 동학농민군은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그날 밤을 머물렀다(「梧下記聞」 『叢書』 1, 56쪽; 「隨錄」 『叢書』 5, 178쪽). 이상의 사실로 볼 때 3월 25일 현재 전봉준 부대는 고부의 동북쪽에 있는 백산이 아닌 고부 서북쪽에 있는 군기고를 공격하였으며 그날 밤은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숙영하였다. 또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

후 古阜 馬項(말목)에 모였을 것이고 그 시각은 최대한 3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각보다 장기간 古阜 馬項(말목)에 머무르다 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3월 26일 白山에 진영을 꾸린 동학농민군은 당일 오후 5~7시 무렵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태인의 용산면 禾湖 新德亭 里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이를 보면 백산대회는 3월 26일 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5~7시 무렵에는 이미 산을 내려와 태인 방면에서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27일, 28일의 행적은 잘 알수가 없고 3월 29일 태인읍으로 진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진로를 『鴻齋日記』를 중심으로 기존 자료와 교차 검토하였다. 이를 지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2>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진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활용)

보다시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 2~3,000여 명은 3월 23일 오전 9~11시 무렵 흥덕 줄포 사정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9시 무렵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에는 궁기고를 탈취하

고 화약고를 불태웠다. 그리고 오후 1~3시 무렵 서북쪽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같은 날 고부 馬項(말목)에 주둔하였다. 최대 3월 26일까지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금구 원평으로 향한 부대는 김개남 부대다.

3월 26일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진을 옮겨 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7 무렵 산을 내려와 태인 용산면 禾湖 新德亭리로 옮겨 주둔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태인읍으로 진입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로를 살펴 볼 때 백산대회는 1894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다. 『鴻齋日記』에서 이들을 두고 東學軍이라고 지칭하여 주목된다.

#### 4. 1894년 4월 이후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과정에 대한 기술

1894년 4월 들어 기행현은 金洛喆의 활동을 포착하였다. 4월 1일 金汝中黨 수백인이 分土洞 김씨 재실에 모여 진을 쳤다.<sup>43</sup> 다음 날 이들은 자못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金汝中黨 40여 인이 성안으로 돌입하여 獄門을 부수고 군정을 모두 放出하고 곧장 동헌에 들어가 부안현감을 책망하기를, ‘어찌 군정을 모집하였느냐’라고 하고 다시는 군정을 모집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신당부하였다.

---

43 『鴻齋日記』, 401~402쪽, 甲午(1894) 4월 1일, “望見則長曷里金汝中黨數百人 屯聚于分土洞金齋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1쪽.

오늘 布告文을 南門에 붙이고 이방과 호방을 붙잡아 가서 백미 10섬과 돈 200냥을 즉시 납부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고 내보냈는데 본관이 크게 분노하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邑弊와 民瘼 등 여러 조목을 糾定하라는 뜻을 윤시하였다.<sup>44</sup>

이는 부안현에서 읍저의 긴장한 자들 100명을 군정으로 모집하고 金邦憲을 領舉大將으로 삼아 올려보내기 위해 陣軍한 행위<sup>45</sup>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부안에서도 김낙철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호응하여 4월 4일 동학농민군 10,000여 명이 다음과 같이 부안읍성을 함락하였다.

동학군 10,000여 명이 뜻하지 않게 입성하여 일시에 성을 함락하였다. 본관이 바야흐로 도피하는데 저들이 알고 東軒으로 잡아들였는데 그때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저녁에 향교에 들어갔는데 上齋와 夏齋에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하였다. 도로 나와서 성안을 바라 보니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였고, 총을 쏘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였다.<sup>46</sup>

---

44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2일, “金汝中黨四十餘人 突入城中 破碎獄門 軍丁盡爲放出 直入東軒 責本倅曰 何爲募丁巾 更勿募丁之意 信信語之矣 今日則布告文付之南門 吏戶捉去 白米十石錢二百兩 卽納之意 分付出送 而本官大怒不聽云矣 又有邑弊民瘼諸條 糾定之意輪示矣”; 『국역 흥재일기』 상, 722쪽.

45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2일, “昨日募軍 邑底壯健者百名 以金邦憲爲領舉大將 上送之意 陳軍矣”; 『국역 흥재일기』 상, 722쪽.

46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4일, “東學軍萬餘名 不意入城 一時涵城 官方逃避 彼軍知之捉致 東軒其時困狀難可形容云 暮入校宮 上下齋寂無一人 還來望見城中 火光漲天放炮聲振動天地”; 『국역 흥재일기』 상, 722~723쪽.

이어서 4월 5일에는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이 일어났다.

다시 읍에 가서 南城에 올라 동학군의 陣中을 밟 보니 旗幟와 劍戟, 鼓角, 火炮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정오에 上蕪山에 늘어선 陣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 왔다. 京兵이 감영병과 더불어 四面에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西海에서 대포 소리가 6, 7차례 진동하였다. 吏屬무리, 鄉儒와 班常을 따지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 毀道한 자를 종일토록 嚴刑하였고 邑規를 정했다고 한다. 鄉儒와 堂掌이 도피하여 향교의 문서 상자를 얻을 수 없어서 밀고 들어가 靑衿案과 校生案을 불태웠다고 한다.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왔다. 우리 마을 동학인 朴文表가 도착하였다. 그래서 물었더니 본읍에 일이 많고 警병과 감영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47</sup>

1894년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본격화하는 폐정개혁 활동의 시초가 엿보여 주목된다. 이윽고 4월 6일 황토현전투의 서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읍에 가서 東學人이 출발하는 것을 보았는데, 陣勢가 아주 엄정하였다. 5세 아이와 14세 아이가 魁首라고 한다. 다시 도소봉에 올라가 바라 보니

---

47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5일, “更往邑 登南城 望見東學軍陣中 旗幟劍戟鼓角 火炮掀天 日午登上蕪山列陣 卽爲下來矣 京兵與營兵四面立至云 而日暮西海大砲聲六七次振動矣 吏屬輩鄉儒與無論班常 有罪之人 毀道者 終日嚴刑 定邑規云 而鄉儒與堂掌逃避 不得鄉校文書櫃 推入靑衿案與校生案燒火云 日暮歸家本村東學人朴文表來到 故問則本邑多事 而京兵與營兵不可畏也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3쪽.

사거리에서 곧장 외요촌을 향하여 中橋를 넘어 고부의 上基 뒤에 이르렀다가 내려 왔다. 감영의 병정이 성으로 들어왔는데 본관이 도주하여 府中이 텅 비었다고 한다. …… 저녁을 먹은 후에 동헌에 들어가서 우리 현감을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왔다. …… 본관은 진짜 도주한 것이 아니었고 王師를 맞이할 생각으로 東津에 갔다가 왔다고 한다. 감영병은 백산에서 고부로 곧장 향했다고 한다. 『古秘記』에 이르기를 ‘癸巳年 7월에 사방 들녘이 하얗고 甲午年 5월에는 萬人이 푸르리라고 하였다.’<sup>48</sup>

이를 통해 부안을 빠져나간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다시 고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부안현감은 생존하였다. 동학농민군에게 살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癸巳年 7월에 사방 들녘이 하얗고 甲午年 5월에는 만인이 푸르리라”는 『古秘記』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황토현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이 들려왔다.

감영병 만여 명이 東學陣을 고부 황토현에서 마주쳐서 서로 싸웠는데 감영병 수천 명이 沒死하였다. 그런데 죽은 동학인은 단지 2, 3명이라고 한다. 中軍將 李在燮은 도주하였다고 한다. 향교에서 나오다가 장갈리 동학인 김여중을 마주쳤는데 듣자니, 우리 읍도 바야흐로 후환이 있을 것이니 누구든 따질 것 없이 삼가 피신하라고 하였다.<sup>49</sup> …… 고부의 接戰에 대해

48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6일, “往邑見東人發行 陣勢極爲嚴靜 而五歲童與十四歲童爲魁首云 更登道所峯望見則自四巨里卽向外蓼村 越中橋 至古阜上基後下來 聞營門兵丁入城 而本倅逃走 府中一空云 …… 夕飯後 入東軒 見本倅問慰而來 …… 而本官眞非逃走也 迎王師之意 往東津而來云 營兵白山直向古阜云 聞古■秘記曰 癸巳七月四野白 甲午五月萬人靑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3~724쪽.

49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7일, “營兵萬餘名 遇東學陣於古阜黃土峙 相戰而營兵數千名沒死 而東學人死者 但二三名云矣 中軍將李在燮逃走云矣 自校出來 逢長

다시 들으니 동학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감영병의 경우 더러 100여 명, 더러는 천 여명이 죽었다고 한다.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는데, 감영군이 지나간 곳에는 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다. 營軍將 4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宋四川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 동학인은 흥덕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sup>50</sup>

동학농민군의 황토현전투 대승 소식이 들린 것이다. 그리고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는데, 감영군이 지나간 곳에는 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다”는 언급을 통하여 동학농민군이 감영병에 비하여 인심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는 兩湖招討使 洪啟薰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4월 14일 홍계훈이 全州府中으로 들어와서 金世豐을 죽이고 監司 金文鉉의 죄를 따져 물은 정황을 들었다. 여기서 金世豐은 金始豐이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茂長으로 향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정에서 東學과 더불어 私和한다는 소식도 들렸다.<sup>51</sup> 全州和約의 조짐이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장성 황룡촌전투 소식도 들렸다.

葛里東學人金汝中 聞本邑方有後患 無論某人謹避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4쪽.

50 『鴻齋日記』, 402쪽, 甲午(1894) 4월 9일, “更聞古阜接戰事 東學之人無一人死者 營兵死者 或云百餘名 或云千餘名 而東學之人 所過不踏一生草 不殺一生虫 營軍所過處 無不殘滅云 營軍將四人被死 而宋四川亦在其中云矣 東學之人移去興德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4쪽.

51 『鴻齋日記』, 403쪽, 甲午(1894) 4월 14일, “招討使洪在希還去府中 殺金世豐 數罪監司 金文鉉云 東學之人去茂長云矣 林友自校來去 偵探使下去茂長東學所 而朝家與東學 欲爲私和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5쪽.

우리 마을 東學人 姜一奉이 도착하였다. 때문에 물었더니 지난 23일 午時에 長城의 月坪에서 접전하였는데 죽은 京軍이 수백 명이었고 동학인은 수십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어제 정읍에 洪大將이 이르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다.<sup>52</sup>

이번에도 동학농민군 대승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러다가 곧 동학농민군의 전주 점령 소식이 들려왔다.

문득 듣자니 東學軍이 全州 府中에 들어가서 일시에 성을 함락했다고 한다. 大將은 용머리고개에 미쳐 오지 못했다고 한다.<sup>53</sup>

이후로는 완산 전투에 대한 건문이다. 5월 2일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東學人 수백 인이 죽었고 성 밖은 모두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고 성 밖과 성 안에서 죽은 인민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全州府의 判官이 營將, 中軍과 함께 태조대왕의 畫像과 殿牌를 모시고 도피하여 府中에는 화상과 전패가 이미 없었기 때문에 洪大將이 火攻을 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前監司는 틈을 타서 도주하였고, 새 감사는 바야흐로 礪山에 있다고 한다.<sup>54</sup>

52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4월 26일, “本村東學人姜一奉來到 故問則去二十三日 午時 長城月坪接戰 京軍死者數百名 東學人死者數十名 昨到井邑洪大將 不知何處在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7쪽.

53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4월 30일, “忽聞東學軍入全州府中 一時涵城云 而大將未及在於龍頭峙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7~728쪽.

54 『鴻齋日記』, 404쪽, 甲午(1894) 5월 2일, “東學人死者數百人城外盡入蕩檣中 而城外城內人民死者 不可勝數 本府判官與營將中軍 侍太祖大王畫狀與殿牌 逃走府中 既無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패전 소식이 들렸다. 5월 4일에는 동학농민군의 도주를 막으라는 官家의 秘帖과 초토사의 甘結을 보았다.<sup>55</sup> 이로써 동학농민군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졌다. 그런 가운데 5월 6일 이번 달 3일에 접전하였는데 東學人은 600명이 죽고 京軍은 16명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淸軍 3,500여 명이 방금 내려왔다는 소식도 들었다.<sup>56</sup> 상황이 매우 급박해지기 시작하였다. 5월 8일에는 3일 접전에 서 東學人 1,300여 명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sup>57</sup> 이제 동학농민군의 패배는 자명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동학농민군이 홍계훈과 화친하고 해산하였다는 소식이 들었다. 5월 9일의 기사이다.

갑자기 듣자니, 동학군이 부안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 마을 東學人 朴文表가 전주 부중에서 내려 왔다. 그런데 홍대장과 더불어 和親하고 解散하였다고 한다. 동학군은 그동안 죽은 자가 불과 50명이라고 한다.<sup>58</sup>

---

畫狀與殿牌 洪大將欲爲火攻云 旧伯乘間逃走 新伯方在礪山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8쪽.

55 『鴻齋日記』, 404~405쪽, 甲午(1894) 5월 4일, “午飯後 見官家秘帖招討使甘結內東徒輩或四五名或六七名或稍稍散出四方 各自遯匿云 誠甚痛惡 似彼匪類段 即係覆載間難貸之物 無論某里 令飭村丁雖一箇殊常之人 一邊結縛押上 一邊着意把守切勿漏網逃走之弊是矣 如或認以尋常有所許放失捕之端 則斷當施以軍律 惕念舉行宜當向事是乎等以 茲下帖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8~729쪽.

56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6일, “今月初三日接戰 東人死者六百餘名 京軍死者十六名 而淸軍三千五百餘名 方今下來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9쪽.

57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8일, “更間初三日接戰 東學死者一千三百餘名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9쪽.

58 『鴻齋日記』, 405쪽, 甲午(1894) 5월 9일, “忽聞東學軍方向扶安云 …… 村東學人朴文

동학농민군 대패 소식이 들렸는데 별안간 和親을 한 사실은 매우 의아스러웠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朴文表는 동학교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전사자를 50명에 불과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를 보면 동학농민군이 완산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후 5월 23일에는 東學은 私設이고 逆賊이나 聖上의 赤子이기 에 이들을 침범하지 말 것을 알리는 초토사 洪계훈의 감결을 보았다.<sup>59</sup> 이러한 형태로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타협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감결은 『梧下記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월 25일에는 각 군 영의 움직임이 다음과 같이 포착되었다.

表自全州府中下來 而與洪大將和親而解散云 東學軍前後死者 不過五十名云”；『국역 홍재일기』 상, 729~730쪽.

59 『鴻齋日記』, 406쪽, 甲午(1894) 5월 23일, “本面主人 來示傳令 而招討使甘結內 天生斯民 其性本善 但爲私說所惑 樂禍逆命 自古以來 未有若彼類之爲甚也 噫 東學之學道人之道言其名 則爲道學而究其實 則乃逆賊賊也 將行逆賊之事 而敢假道學之稱者 無乃良民中二三首惡做出 似是之說誣我蚩蚩曰 道學在是 人非先覺 豈無侵梁誦呪則謂疾病不侵 粘符則謂乃兵不入 無知村童 稱爲神人 假托除弊 起爲姦究 臨戰則背書乘勝 以此誑衆 并底誅戮 然則呪符反爲喪身之媒神 童還作害人之魔 所謂除弊不過連死 自稱乘勝 未免敗亡 觀此數端 雖愚愚氓 平日之見欺 豈不況然大覺乎 哀此無辜由彼凶魁 身膏草野 血染 刀鋸興言及 此寧不測然 矧今幡然 改圖者是吾 聖上之赤子潢池弄兵何可推咎 且其父母妻奴子相逢之日 必與執手感泣曰 身爲左道所 誤罪合万死 若非朝家好生之德 安得生還乎然之良心於是自生矣 因此巡導 豈不爲對揚我 聖上包荒之德意也哉 各自該邑面里 勿爲侵捉益除良 良家毀產破 無以奠接選劫其數日 日結講相資有無俾爲安業 毋至道路彷徨之苦是於至若平民之假 使爲賊焰所燒者 則救濟之方當 與彼特異矣 自該邑面里 另爲摘奸從實 施救毀者復之類者 葦之是令飭之後 該邑守令 以此文俱施無顯效 則即當啓黜斷不容昏矣 以此知悉各別舉行 而將此甘解眞諺騰揚付通衢 俾無一民不知之弊 宜當者云 故本官下帖于各面里云矣”；『국역 홍재일기』 상, 731~732쪽.

招討使 洪在希가 상경하였고 靑軍 1,000명이 다시 내려왔다. 400명은 錦營에 들어갔고 600명은 完營에 들어갔다고 한다. 京城은 크게 혼란하여 사대문을 단단히 닫았다고 한다. 靑兵 37,000명이 나왔는데 大人 元世介는 倭와 洋을 붙잡는 것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sup>60</sup>

이 중 靑兵 37,000명은 과장이다. 袁世凱의 이름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청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점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화약 이후 기행현의 입장에서는 동학농민군의 侵虐이 눈에 들어왔다. 6월 7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外遼에 갔는데 東學人 10여 명이 어제 金友의 집에 들어와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셀수 없었고 돈 100냥을 훔쳐 갔다. 20여 명이 오늘 白石의 친구 崔泰甫의 집에 들어와 돈 400냥을 몰래 훔쳐 갔다. 東學人 중에 白癸中과 白士俊이 禁斷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sup>61</sup>

6월 9일에는 동학농민군 朴文表와 金自賢이 外蓼村 白元章의 집에 가서<sup>62</sup> 다음과 같이 협박하기도 하였다.

---

60 『鴻齋日記』, 406쪽, 甲午(1894) 5월 25일, “招討使洪在希上京 靑軍千名又爲下來 而四百名入錦營 六百名入完營云 京城大亂四大門堅閉云 而靑兵三萬七千名出來 元大人世介 拏倭洋爲主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32쪽.

61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7일, “往外遼 東學之人十餘名 昨入金友家 行惡無數 錢百兩盜去矣 三十餘名 今入白石崔友泰甫家 錢四百兩盜去 而東學中白癸中白士俊 禁斷次來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3쪽.

62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9일, “本村東學人朴文表與金自賢 自外蓼村白元章家來到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그대가 面事로 王稅를 독촉할 때에 자기의 結價를 東學이라고 招報한 죄와 錦山の 마름으로 있을 때 자기의 時作畚을 移定한 죄, 두 세 차례 접전하고 전주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죄가 있으니 오늘 내일 사이 그대의 집에 들어가 때려 죽이겠다.<sup>63</sup>

같은 날 동학농민군 백사준이 10여 명을 데리고 기행현의 중제 奇成五의 집안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들 奇東煥을 마구 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동환을 잡아 禮洞으로 갔다.<sup>64</sup> 따라서 가족들이 기동환을 데려오고자 돈 100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65</sup> 결국 기동환이 돌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杖毒을 이기지 못하여 마루에 오를 수도 없었다. 가족들은 동학인이 소리를 듣고 올까봐 두려워하였다.<sup>66</sup> 이때 근처의 여러 사람들이 밤마다 東學黨에 들어가거나 혹은 난리를 일

63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9일, “君以面事督責王稅時渠之結價 以東學■■之致 招報之罪 錦山舍音時 渠之時作畚移定之罪 二三次接戰 自全州生還後 一無來見之罪 今明間屠入君家 打之殺之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4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0일, “從弟成五自家來到云 昨夜半 東學人白士俊 率十餘名 突入家內子東煥摑打 至於死境云而去矣 午後侄東良與東胃來到云 東學更入大小家 大亂相失 東煥捉去禮洞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5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1일, “從弟成五自家來到云 東學措處 非錢無率故來去云 故偕往狀洞 某樣周旋錢百兩 負送後 從弟成習來到 言近處親友 皆白元章見之可也云 故偕來中路 思見白友之心 則心大忽起不能到家 還至埤內書堂宿”; 『국역 홍재일기』 상, 734쪽.

66 『鴻齋日記』, 407쪽, 甲午(1894) 6월 12일, “自狀洞錢便聞家消息 則子東煥…歸家而卽來 有好道理云 故往月川尋妻金敬善 先探家消息 暮往鍾山 夕飯後 與從弟歸家 家中寂寥 四門竹櫳破碎 房中但一老妻 庭下但一兒 子東煥…不勝杖督 招招不能 上堂相扶不能 大聲痛哭 但爲悲泣 猶恐東人聞聲而來也 亂難形容 眞可憐 卽與從弟還至鍾山宿”; 『국역 홍재일기』 상, 734-735쪽.

으키고, 혹은 난리를 금하기도 하였다.<sup>67</sup> 당시 기행현의 감상은 다음과 같다.

곳곳의 東學人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치며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니 대소 민인들이 그 기세에 두려워 하였다. 밤마다 東學黨이 들이닥친다고 한다. 난리를 피하는 방도가 완전히 섬멸하는 데 있으나 어찌 다 죽이겠는가.<sup>68</sup>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이 세를 불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 4, 5명의 친구들과 동행하여 石堤의 李氏 齋室에 갔다. 東學 10여 명이 열지어 앉아 있었다. 接主 金道三이 나가고 없었다고 한다. 外蓼村에 가서 三員 白元章 어르신을 만났다. 新石堤에 가서 어르신 崔鳳煥씨 大祥에 조문하고 되돌아 외요촌에 이르렀는데 東學人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 밤에 새로 들어온 자가 30여 명이라고 한다. 곧바로 와서 文表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마을에서 입교하는 사람이 밤마다 3, 4명인데 오늘 밤에도 4명이라고 한다.<sup>69</sup>

---

67 『鴻齋日記』, 407~408쪽, 甲午(1894) 6월 15일, “而近處諸人 夜夜入東學黨 或作亂或禁亂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5쪽.

68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17일, “處處東學之人 堂堂橫行 行惡作弊 無嚴殺人 大小民人畏於其勢 夜夜祭入東學黨云 避亂之方 全在於殲殺 而何殲殺乎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5~736쪽.

69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23일, “午飯後 與四五友作伴 往石堤李氏齋室 東學十餘名列坐 而接主金道三出他不在云 往外蓼村 見三員丈白元章 往新石堤 吊崔丈鳳煥氏大祥 還至外蓼村 東學處處屯在 而今夜新入者三十餘名云 卽來入文表家 此村入道者 夜夜三四人 而今夜亦四人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6쪽.

급기야 동학농민군에게 침학을 당한 기동환도 6월 24일 東學에 새로 입교하고 天主에 제사지냈다. 6월 25일에는 동학 수백 명이 格浦의 군기를 탈취하기도 하였다.<sup>70</sup> 7월 2일에는 기행현의 친구 閔辰文도 새로 동학에 들어갔다.<sup>71</sup> 그러한 가운데 7월 12일 前 吏房 辛正植이 道所로 잡혀가 笞杖 30여 대를 맞고 指目錢을 상납하게 되었다.<sup>72</sup> 8월 4일에는 기행현이 奇聖天, 李汝彥과 함께 茂長 孫化中 아버지의 장례에 가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의 부친상에 조문을 간 것이다. 기행현의 침구 김여교도 동학에 입도하였다.<sup>73</sup> 8월 28일에는 光州의 足宗 10여 명이 同學에 입교하였다.<sup>74</sup> 제2차 봉기 직전인 9월 8일에는 “지금의 세상이 東學을 배척할 수 없다”고 들었다.<sup>75</sup> 이제 동학농민군이 구축한 질서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0 『鴻齋日記』, 408쪽, 甲午(1894) 6월 26일, “言昨日上西東學數百名 格浦軍器奪去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7쪽.

71 『鴻齋日記』, 409쪽, 甲午(1894) 7월 2일, “閔友辰文來去 新入東學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7~738쪽.

72 『鴻齋日記』, 409쪽, 甲午(1894) 7월 12일, “本村道人往四巨里道所 來言前吏房辛正植 捉致道所 笞杖三十餘度後 指目錢■百■兩 今十五日 納上爲限云”; 『국역 홍재일기』 상, 738쪽.

73 『鴻齋日記』, 410쪽, 甲午(1894) 8월 4일, “今日與本村之人奇聖天李汝彥 去茂長孫化中親葬 往禮洞 與金丈往內禮洞 見本面訓執金友君化家 …… 往遜溪金友善明家 金友汝教亦入道矣”; 『국역 홍재일기』 상, 740~741쪽.

74 『鴻齋日記』, 411쪽, 甲午(1894) 8월 27일, “光州族宗十餘人入東學云”; 『국역 홍재일기』 상, 743쪽.

75 『鴻齋日記』, 412쪽, 甲午(1894) 9월 8일, “與從弟往柳川 高丈濟商氏家宿 當今之世 東學不可排斥云”; 『국역 홍재일기』 상, 745쪽.

## 5. 맺음말

奇幸鉉의 『鴻齋日記』를 중심으로 『隨錄』 등 기존 자료와 교차 검토하여 보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은 제1차 봉기 당시 다음과 같은 행로를 걸었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동학농민군 일부가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다. 그 뒤를 따라서 2~3,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이들은 오후 7~9시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읍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당일 오후 1~3시 무렵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3월 25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활동은 불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태인과 금구 원평방면으로 향하였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인, 금구, 원평 방면의 활동은 김개남이 활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鴻齋日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3월 27일) 本邑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적어도 백산으로의 진영 이동은 3월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이 그 이후 古阜 馬項(말목)에 모였을 것이고 그 시각은 최대한 3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각보다 장기간 古阜 馬項(말목)에 머무르다 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3월 26일 白山에 진영을 꾸린 동학농민군은 당일 오후 5~7시 무렵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태인의 용산면 禾湖 新德亭리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백산대회는 3월 26일 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5~7시 무렵에는 이미 산을 내려와 태인 방면에서 주둔하였다. 奇幸鉉이 『鴻齋日記』에서 지적했듯이 백산대회는 분명 1894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음을 『隨錄』 등 기존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알아낼 수 있었다.

다만 吳知泳의 『東學史』에 있는 白山 檄文은 『鴻齋日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鴻齋日記』에는 「茂長布告文」도 실려 있지 않다. 『鴻齋日記』은 일기이고 각 날짜별 기로기 비교적 간략하기 때문에 각각의 포고문과 격문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東學史』에 있는 白山 檄文이 왜 하필이면 “甲午正月十七日”에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의문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고일 : 2023.11.0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 참고문헌

### 1. 자료

-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홍재일기(鴻齋日記) 탈초집(脫草集)』, 흐름출판사, 2017.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문화발전소, 2022.
- 『隨錄』
- 『石南歷史』
- 『梧下記聞』
-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 1996.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 2. 연구논문

-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 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 裴尙燮,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위상」, 『동학학보』 62, 2022.
- 배학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韓國史研究』 170, 2015.
- 성주현, 「『홍재일기』를 통해 본 부안지역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0.
-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歷史와 實學』 61, 2016.
-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2017.

##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유바다(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奇幸鉉의 『鴻齋日記』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당시 扶安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白山大會를 3월 26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활용했던 사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梧下記聞』, 『隨錄』 등의 사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894년 3월 백산대회를 전후한 시기 동학농민군의 행적을 재구하고자 하였다.

1894년 3월 24일 全瑋準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은 古阜邑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다음으로 같은 날 오후 무렵 高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鴻齋日記』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3월 26일 백산으로 진영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泰仁에서 점심을 먹고 院坪에서 숙영한 부대는 金開南 부대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무렵에서야 고부 말목에 주둔하였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태인으로 들어가고,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제어 : 기행현, 홍재일기, 백산대회, 고부, 마항

## Abstract

# The First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Hongjae Diary

Yoo, Ba-Da(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Through the Hongjae Diary of Gi Haenghyeon,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Buan area during the fir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already been made. However, in order to specify the Baeksan Convention as March 26, a sufficient comparative review with the existing feed must be made.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dditionally reviewed historical records such as O-Ha-Ki-Moon and Soo-Rok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before and after the Baeksan Convention in March 1894.

On March 24, 1894,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centered on Jeon Bongjun, took over the military flag in Gobu and burned the gunpowder store. Next, around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they went on a road between the northwest of Gobu. They are believed to have gathered at Gobu Malmok. According to the Hongjae Diary, they appear to have moved to Baeksan on March 26.

The unit that had lunch in Taein and camped in Wonpyeong on March 25 was the Kim Gaenam unit. In fact, Kim Gaenam's base was Taein. It is unlikely that the main Donghak Peasant Army, which was stationed in Malmok, Gobu, at least around the afternoon of March 24, entered Taein on March 25, advanced to Geungu Wonpyeong, and returned to Baeksan on March 26.

key word : Gi Haenghyeon, Hongjae Diary, Baeksan Convention, Gobu,  
Malmok